

# 정례브리핑

2020.6.24(수) 10:30, 여상기 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관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관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외통위에서,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외통위 여당의원 대상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일정만 공개되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차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6.25전쟁 70주년 기념 특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은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고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온라인 전시는 기념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오프라인 전시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기념관 재개관 이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원 직업교육관 개관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원은 오늘 교육생들이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직업교육원을 개관합니다.

훈련 직종은 북한 이탈주민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기존 15개에서

22개로 확대하고 보다 전문적인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취득과정도 운영합니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조리, 미용사 등 10개 직종의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도 직업교육관에서 치를 수 있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통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이 중앙군사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계획 보류를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 대남확성기 철거하고 선전매체의 대남 비난기사 삭제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의 평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금일 북측의 보도를 보았고 이 보도를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남북 간 합의는 지켜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으며, 이와는 별도로 대북전단 살포 등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북한이 어저께 노동당 군사위원회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에서는 이 화상회의가 코로나 확산 때문에 화상으로 개최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거든요. 혹시 관련해서 통일부가 따로 분석하고 계신 게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어제 화상회의는 김정은 위원장이 화상회의를 주재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데, 북한 보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화상회의를 개최한 것은 처음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화상회의가 어떻게 개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번 회의에서 국가 전쟁 억제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여러 문건을 연구했다고 했고,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리병철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두고 대남 압박은 보류하지만 무력강화는 지속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통일부가 분석한 내용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관련 보도에 대해서 저희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이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예비회의라는 것도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어떤 위상의 회의고 통일부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예비회의라는 것, 중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예비회의라는 것이 과거에 보도된 적이 없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으로 보고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북한 매체가 대북전단 비난 기사를 실었다가 속속 삭제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당국에서도 파악한 바가 있습니까? 올렸다가 삭제한 사실이 맞습니까?

<답변> 예, 저희도 올렸다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질문> 올렸다가 왜 삭제했다고 \*\*\*

<답변> 삭제한 의도나 배경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과거에도 이런 전례가 있었나요? 기사를 올렸다가 삭제한 전례라든가.

<답변> 선전매체가 기사를 올렸다가 삭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답변드릴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다시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어제 탈북민단체 전단 살포에 대해서 오후에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은 것 같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그 이후에 좀 더 추가적으로 확인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대북... 탈북민단체의 행동이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좀 관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잘 듣지 못했습니다.

<질문> 탈북민단체에 후속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의

주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어제 탈북민단체가 보낸 대북전단이 북한에, 북쪽으로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고, 또 그것이 홍천에서 발견된 것 그대로, 어제 말씀드린 그대로 이해해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질의 주신 앞으로 이런 대북전단을 보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또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정하게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불턴 회고록이 상당히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것도 한편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북미관계나 한반도평화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했다는 그런 부분을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이런 어떤 부분이 지금 급작스럽게 이렇게 북한이 다시 이렇게 확성기를 다시 저기하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통일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답변> 지금 세계적으로 외교적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미 전직 고위관리의 저서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